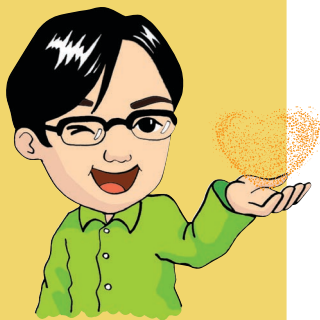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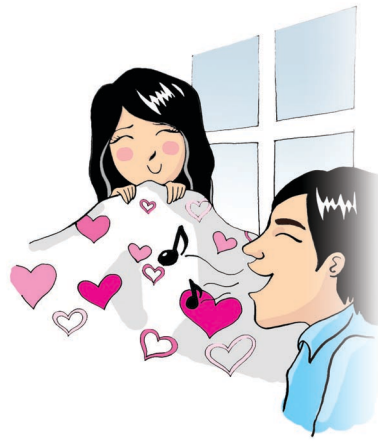


우리
달걀의
끝은
어디인가요

글 _ 김희정 · tladn2007@gmail.com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1972년생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여성풍.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신혼이니 이해할 수 있다 치자. 좋아 죽겠는 걸 어찌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일 아침 결코 아름답지 않으며 오로지 우렁차기만 한 똑똑씨의 노랫소리를 알람처럼 들어야 한다는 건 결코 인내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워~~ 너를 사랑해...”

바윗돌만한 눈썹과 입가에 한 줄로 말라붙은 침 자국을 서로 바라보며, 어쩔 그렇게도 애뜻한 사랑가가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똑똑씨와 미모.

사랑의 세레나데가 끝나자마자 미모양, 침대에서 쭈르르 달려 나와 차갑게 냉각된 물을 공손히 똑똑씨에게 바친다.

“서방님, 시원한 육각수 이옵니다.”
“자기야, 자기가 꼭두새벽부터 내 건강 챙겨주는 거야? 나 감동해도 돼?”
“서방님, 물은 3, 4, 5, 6, 7 각수 등 다양한 형태로 결합이 가능하나, 6각형을 이루는 육각수가 인체가 가장 이롭사옵니다. 체액 가운데 62%가 육각수이며, 육각수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인체가 질병에 대처하는 능력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쩔... 점점 똑똑해지기까지!”
“존경하는 서방님을 닮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보야! 사랑한다!!”
“더불어 아침 일찍 마시는 차가운 물 한잔이

백번 보약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하옵니다. 자, 이 육각수를 꼭 들이키소서.”

지극히 과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감전이라도 된 듯 찰싹찰싹한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똑똑씨와 미모양. 진정 닭살의 극치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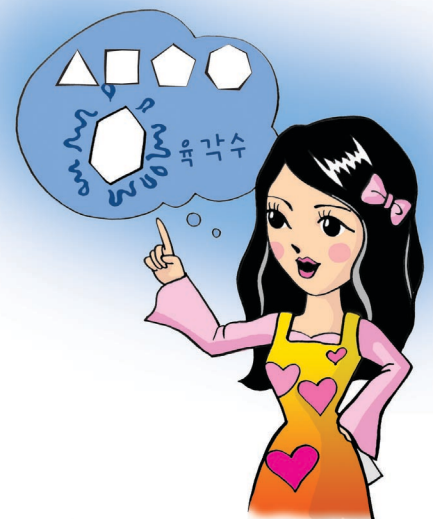
잠시 똑똑씨가 세수를 하는 사이, 미모양 온갖 과학원리가 적혀있는 커닝페이퍼를 보며 씩 웃는다. ‘해냈어!’ 하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미역국을 끓이는 미모양.

“자기야, 날 위해 이다지도 구수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거야?”

“특별히 파는 넣지 않았사옵니다. 미역국 속에 유해물질을 해독하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붙는 것을 방지하는 ‘알긴산’ 성분이 제아무리 많다 한들, 파를 넣으면 큰 효능을 보지 못하지요. 또한 오늘 아침상의 핵심인 이 새우짬은 표고버섯과 함께 요리해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맘껏 많이 드시옵소서. 한 번 잡수어 보시겠사옵니까?”

마냥 즐거운 똑똑씨, 새우짬을 하나 먹어보고는 행복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이 된다.

“감동, 감동! 간도 완벽해!”



“모든 맛은 온도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요. 짠맛과 쓴맛은 높은 온도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고 식으면 강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땐 좀 싱겁다 싶을 정도로만 간을 해야, 식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요. 과학원리만 잘 알면 누구나 장금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후식은 오렌지를 준비했습니다. 단맛은 섭씨 35℃ 정도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렌지나 사과 같은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단맛은 억제되고 신맛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금털털 맛이 없어집니다. 이 오렌지는 상온에 보관하여 단맛이 아주 좋으니, 어서 드시지요.”

“미모, 도대체 몇날 며칠을 공부한 거야? 날 위해서, 그걸 다 외웠어? 어쩔... 당신은 나의 러버, 나만의 천사!”

똑똑씨와 미모양의 과학적인 닭살행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드디어 출근 시간.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갑자기 뒤돌아 미모를 바라보는 똑똑씨의 눈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한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이토록 그대가 그리운데, 그대가 곁에 없는 열 시간은 어떻게 견디난 말야. 각 죽어버릴 만큼 그대가 그리울 거야.”

“저두요. 똑똑씨, 너무 그리워서 하루 종일 눈이 짓무를 거예요.”

“우리...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하는 거지?”

“똑똑씨, 앞으로 ‘순간이동’을 연구하면 안 될까? 내가 부를 때마다 순간이동해서 내 앞에 ‘딱’ 하나 나타나 줘요. 네?”

“알았어, 미모. 당신 부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게. 까이꺼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인체를 원자단위로 해체하려면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모의 몸무게가 50kg이니까 1메가톤급 수소 폭탄 100개의 에너지 정도면 돼. 또 원자 각각의 정보를 담으려면 10GB용량의 PC용 하드디스크로 은하계 전체를 메울 수 있을 만큼의 저장매체가 있어야 하고, 원자들을 공간이동 시킨 뒤에 인체 설계도에 맞게 똑같이 결합시키는 것도 문제고 말야...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미모가 원한다면 내가 한 번 만들어 볼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태양이라고 따올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당신만을 사랑해. 미모!”


“반사!”
“나두 반사!”
“또 반사”

본드처럼 딱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는 두 사람. 수 없이 하트를 반사하며 닭살행각을 벌인지 벌써 30분 쯤이다. 오늘도 지각을 면할 길이 없는 똑똑씨. 그러나 똑똑씨가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현관을 빠져나올 때쯤 미모양의 눈엔 어김없이 눈물이 맺힌다.

“똑똑씨,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불안해.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잖아. 똑똑씨가 변해 버릴까봐. 겁이 나”

“미모, 사랑에 빠지면 신경 흥분을 유도하는 도파민이 증가하고, 페닐에틸아민은 마치 천연 각성제처럼 작용해서 상대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샘솟아나게 하며, 옥시토신은 성적인 흥분을 유도하고, 체내 마약 성분인 엔도르핀이 급증하면서 ‘사랑 호르몬’들의 합주는 극에 이르게 되지. 물론 이런 호르몬들이 기껏 18개월 밖에 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무시할 순 없지만, 내 사랑은 그런 호르몬 작용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감정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 사랑 미모, 걱정일랑 뉘어 두고 나만 믿어.”

“여보, 사랑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한 달째 계속되는 똑똑씨와 미모양의 닭살행각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똑똑씨의 박학대식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